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결실의 계절...새롭게 시작하는 모임들

다락방모임 · 성경대학 · 목회자세미나 · 각종 교육

교회는 다양하게 진행했던 여름행사들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몇가지 행사와 모임들을 다시 시작한다.

8월 한달 간 쉬었던 다락방 모임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다락방 모임을 재개하면서 각 다락방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을 다시 가지기에 앞서 다락방장을 위한 교육이 종전과 같이 1일(수) I·II부 예배 후에 각 교구별로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는 다락방 모임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다락방장 리더십 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지침들이 제시된다. 또한 이 자리에선 같은 교구에 속한 여러 다락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제 6학기 성경대학이 9월 첫 주부터 일제히 개강한다. 이번 학기에는 갈라디아서반, 사무엘상반, 스바나반 등과 리더양성반이 새롭게 개설되었으며 느헤미야반(아담반)과 음악교실의 강의도 계속 된다. 성경대학은 매주 1시간의 강의를 10주간 계속된다.

등록비는 각 과목당 오천원이며 처음 등록하는 수강자는 입학금 오천원을 별도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 및 수강신청서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으며 개강 당일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4면)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이 주최하는 제 1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9월 6일 서울 강남YMCA대강당에서 개강한다.

11월 8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계속될 이번 학기의 주제는 “새 시대의 섬김 목회 모델”이다. 이번 학기는 주제에 따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할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자각하고 각 분야별 섬김 사역을 검토하게 된다.

제 1교시는 이종윤 목사의 강의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의 사명을 살피고 영적

으로 각성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2교시는 각 분야별 섬김 사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목회 모델을 제시하는 특강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강의 제목과 강사를 살펴 보면 ‘21세기 디아코니아 목회 모델’(연세대 김광식), ‘노인 문제와 교회 역할’(장신대 맹용길), ‘교회 유아원과 지역 사회 봉사’(서울신대 정소영), ‘병원 전도와 호스피스 사역’(연세대 이원희), ‘교도소 선교와 수감자 가족 선교 전략’(한국교정선교회 이정찬), ‘실직자와 노숙자를 향한 섬김 사역’(대일공동체 최일도),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 성쇠의 상관관계’(감신대 이원규), ‘복지관 운영과 교회’(수서소망선교관 손은경), ‘장애인 선교의 현주소와 대책’(요셉의 집 김재신), ‘나그네(난민, 외국인)에 대한 봉사 목회’(수송교회 홍성현)이다. (관련기사 4면).

또한 교회학교의 여름행사와 휴가 등으로 그간 쉬었던 장로기도회와 피택 임직자 교육도 다시금 시작된다.

장로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II부 예배 후 403호실에서 갖는다.

피택장로교육은 9월 둘째 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6시, 피택집사교육과 피택권사교육은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각각 실시된다.

9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1일	다락방장 교육 재개 (매주 수요일 I·II부 예배 후)
6일	목회자신학세미나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6-10일	서울성경대학 갈라디아서반, 사무엘상반, 스바나반, 느헤미야반, 리더양성반 및 음악교실 개강 (10주간)
10일	피택장로교육 재개 (매주 금요일 오전 6시)
11일	피택집사교육 재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11일	피택권사교육 재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서울교회에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31일(화) 오후 6시 30분 401호실에서

7월과 8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을 위한 환영회가 31일(화) 오후 6시 30분 401호실에서 개최된다.

종전의 새가족환영회는 매월 마지막 주 찬양예배시간에 가졌었으나 이제부터는 격월로 마지막 화요일에 가지기로 했다.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도 단순히 소개하지 않고 저녁식사와 함께 해당 교구 식구들이나 전도회 식구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갖고 새가족이 된 후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새가족환영회에는 7·8월에 등록된 새가족과 인도자, 교구 담당 목사, 교구장, 각 지회 전도회장과 관심있는 성도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는 새가족부로



이사야 강해

우리가 피할 밀실

이사야 26장 20 - 21절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예언자는 심판의 폭풍이 지나기까지 모든 성도는 밀실에 들어가 숨어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잠시 후에는 마지막 심판이 올 터인데 풍랑의 때를 잘 넘길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잠시 후에 올 것입니다.

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총까지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구별을 받았습니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만 낭패와 좌절을 하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밀실에 숨어있어야 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21절).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기 위해 나오시는 모습입니다(미 1:3).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밀실에 숨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길게 보일지 모르

1.우리가 피할 밀실은 어디인가

(1)기도의 밀실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마 6:6).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히 하는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시127:1 - 2). 은밀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겸손케 하며, 자신을 숨겨야 합니다. 모든 위선과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2)보호의 밀실

“여호와 의 이름은 견고한 땅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시 27:5).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고난의 밀실

고난의 밀실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의 밀실, 성별의 밀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고후 6:17). 이스라엘은 잠혼을 금했습니다(수 23:12 - 13). 스스로 구별하는 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고통의 밀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2.왜 밀실에 들어가야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내 백성이 갈지어다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잤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사 26:20 - 21)



이종운 목사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낭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밀실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밀실로 들어가게 하심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보호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돌에 부딪혀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면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은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으므로 물결의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밀실에 숨어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처리하시게 함이 옳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의 밀실에 들어갑니다.

3.언제까지 밀실에 숨어야 하나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20절).

나 하나님께서는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히 10:37),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계 2:10). 십 일이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 있을 뿐입니다.

2세기 신학자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기독교를 세운 아타나시우스의 말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한 점의 구름처럼 십 일 후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잤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2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데 바벨론이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피흘리게 했던 사실이 규명되고 판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의 밀실, 보호의 밀실, 고난의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난민 UN청원운동 현장에서●

영혼 사랑을 배우고

오유식(집사, 바울 제 1선교회)

바울 1선교회 회원들은 21일(토) 가족들과 함께 서명을 하기 위해 강남역 거리로 나섰다. 우려하던 비는 오지 않았으나 사람들에게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두려웠다. 우리가 만날 낯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서명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젊은 사람들로 붐비는 강남역 일대에서 우리 회원들은 서명대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불러 서명을 받기도 하고 2명씩 짝을 지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며 서명을 받기도 했다.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자꾸 거절 당할 때는 창피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귀찮아 하고 냉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북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다. 이번에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실질적 체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만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고, 냉랭한 우리 마음이 동토의 땅 북한의 척박한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으로 참여한 선교회 가족들과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운동에 더욱 열심을 내보리라고 다짐해 본다.

●북한난민 UN청원운동 보고서●

목표 20만명 초과 달성

김세재(집사, 서울교회 서명운동본부)

우리 교회에서 6월부터 참여한 탈북동포를 위한 서명운동이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차 목표인 20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

6월 첫 주에 당회의 결의로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 서울교회 서명본부(위원장 정병무 장로)를 발족하고 그간 꾸준히 서명운동을 벌여왔는데 7월 중순에 3명의 만부장(박순봉 권사, 김선미 권사, 이수자 권사)이 탄생했다. 그리고 8월 13일(금) 1백만명 서명 달성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3명의 만부장 권사들과 김세재 집사가 단체 서명(77,000명)의 공로로 기념패를 받았고 김인식 권사도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기념패를 받게 된다.

대학·청년부의 강남역 노상서명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의 서명운동은 이달 7일 8교구 식구들이 노원역사를 중심으로 노방전도 겸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천 2백 여 명의 서명을 수취한 데 이어 18일부터 20일 현대우성리조트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전국대회에서도 본 교회 소속 회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 1천 2백 여 명의 서명을 받고 기념패지를 달아주는 등 본 서명운동의 확산을 위해 맘을 흘렸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바울 제 1선교회 회원들이 강남역 주변에서 노방전도 겸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천 여 명의 서명을 받고 전도용 부채와 전도지, 기념패지 등을 배포했다.

발족 3개월 만에 목표 20만 명을 달성한 서명본부는 이 운동을 본부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전개하기 위해 목표표를 30만 명으로 수정하고 UN에 서명지를 제출하는 12월 10일까지 연장 실시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외국에 있는 거래선, 연고자 및 유학생·자녀를 둔 교인들의 협조를 요망하고 있다. 이들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서명본부에 알려 주시면 외국에서 서명받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쿠키문, 전단, 관련기사 스크랩, 서명용지를 발송해 현지에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150명(서명지 5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오면 사회봉사활동 10시간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서명기념 티셔츠를 나누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비참한 여건 속에서 도파하며 자유의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탈북동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UN에 청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명 수취 우수 개인 명단(8월 22일 현재) 박순봉(20,000명 이상), 김선미 이수자 김인식(이상 10,000명 이상), 박이준 김현주 함송현 이민화 홍성주(이상 5,000명 이상), 전기섭 서문석 김병숙 권영옥 심재율 김현정 조철기 이계홍 최형열 김정란 김진달 김재술 이남성 이상태(이상 1,000명 이상)

●자매부대를 방문하고서 ●

철의 삼각지대를 찾아

이기홍(집사, 비전2020운동본부 홍보부장)

군복음화에 앞장서겠다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철의 삼각지대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26일(목) 비전2020운동기 드온용사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부대인 육군 제3사단을 방문했다. 오전 8시, 교회를 출발한 방문단은 '백골부대'로 유명한 3사단을 찾아 군복음화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본 교회의 자매부대인 3사단 방문은 이종운 목사님, 동참하신 장로님들과 군중참모부와 사단사령부 관계자들과의 환담이 먼저 있었고 교육기념관을 둘러 장병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비디오투로 보고 장병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에 둘러 살펴보기도 했다.

군복음화를 위한 비전2020운동실천본부

위원장인 이종운 목사는 이성규 사단장(소장)과의 환담에서 "공산주의자들, 곧 무신론자들과의 대결에선 기독교 신앙이 좋은 무기"라고 했고 이 사단장은 "장병들에게 되도록 신앙을 갖도록 권하고 있으며 실제로 장병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39년 전, 3사단에서 군중으로 복무한 이 목사님은 본인이 세운 18연대 3세대 교회를 방문하고 대대장을 격려하기도 했다.

3사단은 6·25 동안 때 철원, 평강과 함께 '아이언 트라이앵글(철의 삼각지대)'로 불렸던 김화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기독교인들이 불교 신도의 2배, 천주교인의 4배 이



상 되는 등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성당과 범당은 3개씩인 반면 교회는 20개나 된다고 한다. 비전 2020운동본부에서는 이미 3사단 장병들의 세례식을 두 차례에 걸쳐 후원하였고 이날도 금일봉을 전달했다.

3사단을 떠나오면서 방문단 일행은 그곳 전우상 군목이 시무하는 삼성교회를 방문하여 이성득 목사님의 인도 아래 군복음화를 위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리더양성반

정성국(전도사, 리더양성반 간사)

9월 둘째 주일부터 일제히 시작될 서울성경대학에 '리더양성반(L.T.C.)'이 신설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과정은 우리 교회에서 운영 중인 여러 소그룹들이 필요로 하는 리더들을 발굴, 양육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새 예배당 시대의 시작과 함께 각 부서에서 요청될 다양한 리더십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리더양성반의 차별화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양성반은 10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7시에 시작한다. 진행은 찬양의 시간(~ 7시 10분)으로 시작하여 제 I부는 사도행전을 텍스트로 그룹별 나눔의 시간(~ 7시 50분)을 갖고 휴식 및 간식(~ 8시) 후 제 II부로 주제별 강의를 듣게 된다.

제 II부 주제별 강의는 70분 강의 후 20분 간질의 응답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지도자의 영성" (이종윤 목사), "구약의 지도자" (정운돈 목사), "신약의 지도자" (이규정 목사), "지도자의 자아상과 내적 치유" (정대일 전도사), "기독교 세계관과 크리스천 문화" (이상진 목사), "선교와 복음 전도의 실제" (정홍재 전도사), "참된 예배와 찬양" (이성득 목사), "예수님의 제자 훈련" (장수환 목사), "20세기 한국교회사 반성과 21세기 크리스천의 책임" (이만열 전도사), "소그룹 인도와 제자 양육" (고경선 목사) 등 10주간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도자 양성부 수강생에 한하여 1박 2일 간의 수련회도 계획하고 있다. 진행은 정성국 전도사(지도자 양성반 간사)와 청년부·대학부 회원들이 맡기로 했다.

지도자양성반의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이며 9월 5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동정 ■

- * 임정희 집사(1교구 논현 4다락방)는 "하비커피숍"을 확장 개업했다 (☎547-9200).
- * 유동훈 성도(12교구 분당3·4다락방 유명중·이영희 집사 아들)은 7월 29일(목)에 입대했다.
- * 오명길 성도(2교구 역삼다락방 오정수 장로·이영희 집사 아들)은 9월 2일(목)에 입대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전광영·김인숙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베들레헴찬양대는 30일(월) 새 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이사 ■

- * 김동렬·최정숙 집사(8교구), 성북구 월계동으로(☎913-9508).
- * 이복규·한명순 집사(10교구),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로(☎476-7352).

제 6학기 서울성경대학

교과과정표(9-12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갈라디아서	월요일 오후 8시	정운돈 목사	9월 6일
사무엘상	화요일 오전 6시	이성득 목사	9월 7일
스바나	화요일 오후 8시	지혜영전도사	9월 7일
느헤미야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9월 9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8시	허희철 집사 안진선 선생	9월 9일
리더양성반(L.T.C.)	금요일 오후 7시	고경선 목사	9월 10일

제 1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1999년 9월 6일 ~ 11월 8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새 시대의 섬김 목회 모델"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9. 6.	사도행전 연구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21세기와 디아코니아 목회 모델 김광식(연세대)
9. 13.		노인 문제와 교회 역할 맹용길(장신대)
9. 20.		교회 유아원과 지역 사회 봉사 정소영(서울신대)
9. 27.		병원 전도와 호스피스 사역 이원희(연세대)
10. 4.		교도소 선교와 수감자 가족 선교 전략 이정찬(한국교정선교회)
10. 11.		실직자와 노숙자를 향한 섬김 사역 최일도(다일공동체)
10. 18.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 성쇠의 상관관계 이원규(감신대)
10. 25.		복지관 운영과 교회 손은경(수서소망선교관)
11. 1.		장애인 선교의 현주소와 대책 김재신(요셉의 집)
11. 8.		나그네(난민, 외국인)에 대한 봉사 목회 홍성현(수송교회)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서울성경대학과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2.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3. 새로 시작하는 다락방 모임과 피택자 교육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의약도

